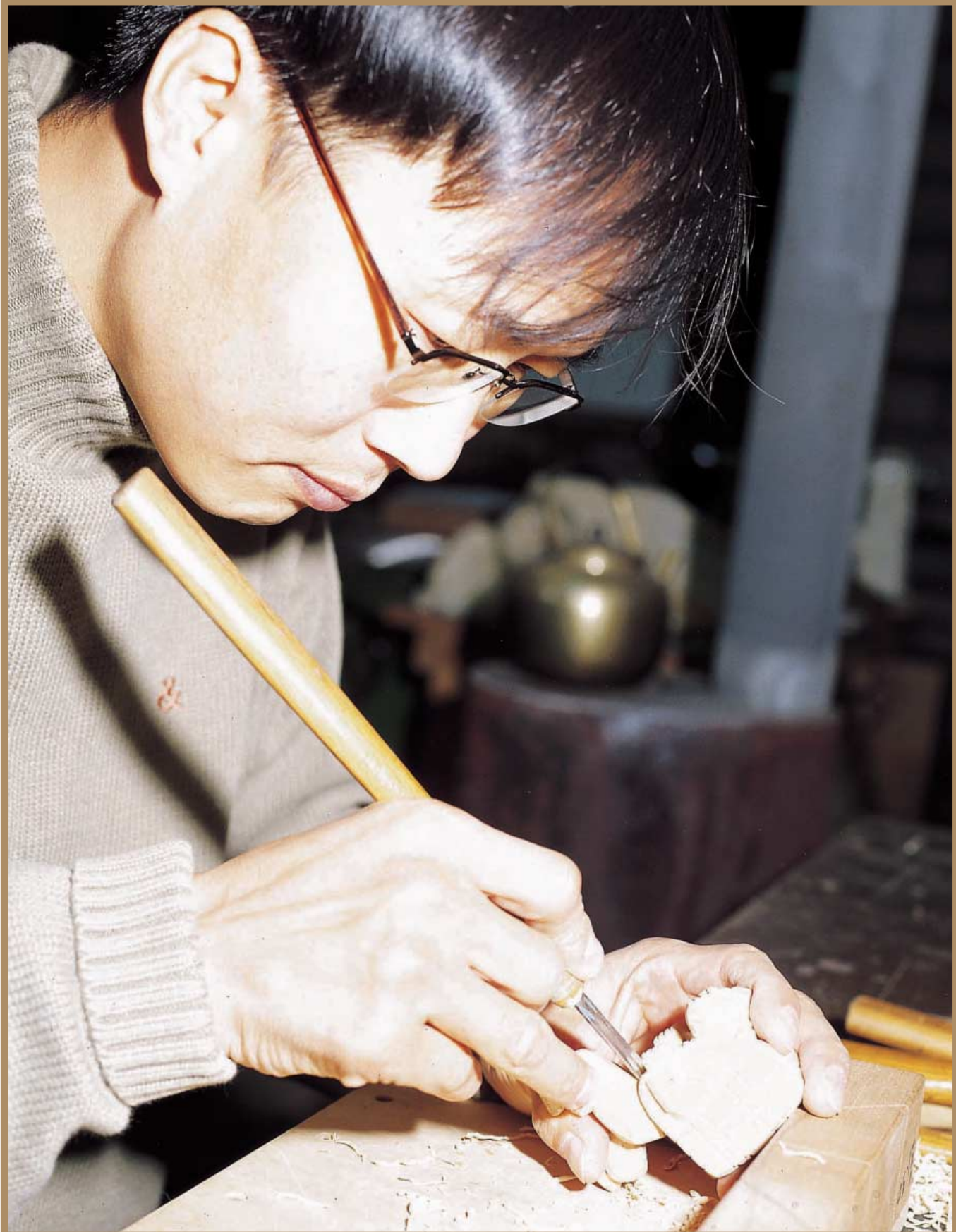


 경기도

우리의 시대의 삶

2002 정기우품이





3 새로운것이 샘솟는 나무섬

목공예 김 영 민

김영민씨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다. 보통 문화예술인하면 구렛나루에 파이프 담배를 문다거나 하다못해 말총머리에 베레모라도 쓴 모습이 연상됨에도 불구하고 오이려 그의 모습은 예술가라기 보다는 켈러리 맨이나 선생님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수염도 기르고 옷도 고상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전 그런 재주는 없거든요. 하지만 겉보다는 속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하며 소탈한 웃음을 짓는다.



찾아가는 길

-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01
- 대중교통
안성터미널 ⇨ 800번, 82번 종점
- 자가운전
외곽순환도로(벽제IC) ⇨ 1번국도
- 약도



소년의 마음이 담긴 그리운 날

김영민. 그의 이름은 어딘지 모르게 낮이 익다. 아닌게 아니라 각종 공예대전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아 이름이 세간에 많이 오르내렸으니 그럴 법도 하다. 1998년에는 전국 공예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때 출품한 작품이 ‘그리운 날’ 이다.

‘그리운 날’은 한국의 자연적인 이미지를 정감있게 표현한 목재 생활용품이다. 작품의 형태와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고, 작품속 인물표현에 우리 고유의 오방색을 도입하여 한국의 아름다움과 옛 정취를 잘 표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연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작품이다. 또한 나뭇결을 잘 살린 기하학적 무늬가 튀어나고 현대공간에 잘 어울리는 구조적 형태를 갖추었으면서도 한국의 정취를 간직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린시절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장독대에 올라가 달을 따던 친구들, 뒷동산에 피리블던 동무들을 인형으로 형상화했지요.” 그의 작품에는 하나하나의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리운 날’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고향의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전북 군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는 시골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시골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가까워 보여 부모님이 만들어 준 빗자루를 들고 별을 따던 순수한 소년, 산에 나무하러 가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를 하던 아이들, 풀피리를 불며 들판을 누비던 기억까지 ‘그리운 날’은 그의 이런 어린시절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새로운 것이 끝없이 샘솟는 나무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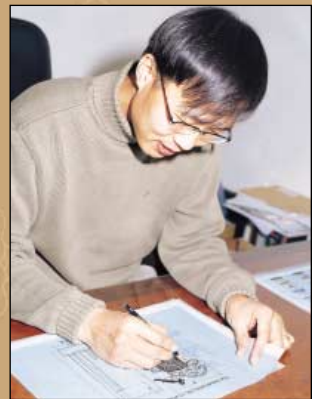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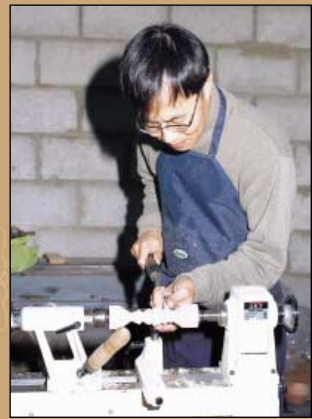
나무와 함께한 인생 30년. 30년이란 시간을 들은 사람들은 한번씩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마흔 문턱에 들어선 그가 30년간이나 나무 속에서 생활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때부터 목공예를 해왔다는 나무샘 대표 김영민은 자연과 누구보다도 가까이 살아왔다. 아버지와 형에 이어 가업을 잇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예전에는 공예라는게 배고픈 직업이어서 생활고에 찌들리는 공방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마저 산에서 돌아오지 않게 된 이후 이일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다니던 교육대학을 중퇴하고 일에 뛰어 들었다.

“아마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교사가 됐을 지도 모르죠.”라며 환하게 웃는다. 나무샘은 1986년에 민공예라는 상호로 출발했다. 이후 2000년 나무샘으로 상호를 변경, 지금까지 꾸준히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 창조의 기쁨은 무한한 것이지요.”

나무샘은 나무에서 새로운 것이 계속 샘솟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전에는 이 직업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우리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지만 선두자로 활동하는 공예가들이 후배들을 잘 육성하고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세계적인 작품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풍토가 짙어지면서 원목(나무)을 찾은 사람들이 늘고 있어 목공예사업은 앞으로도 전망있는 사업으로 주목받는다. 나무샘에서는 목공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일반적으로 직업학교나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목공예를 직장인이나 학생들과 주부들에게 손쉽게 목공예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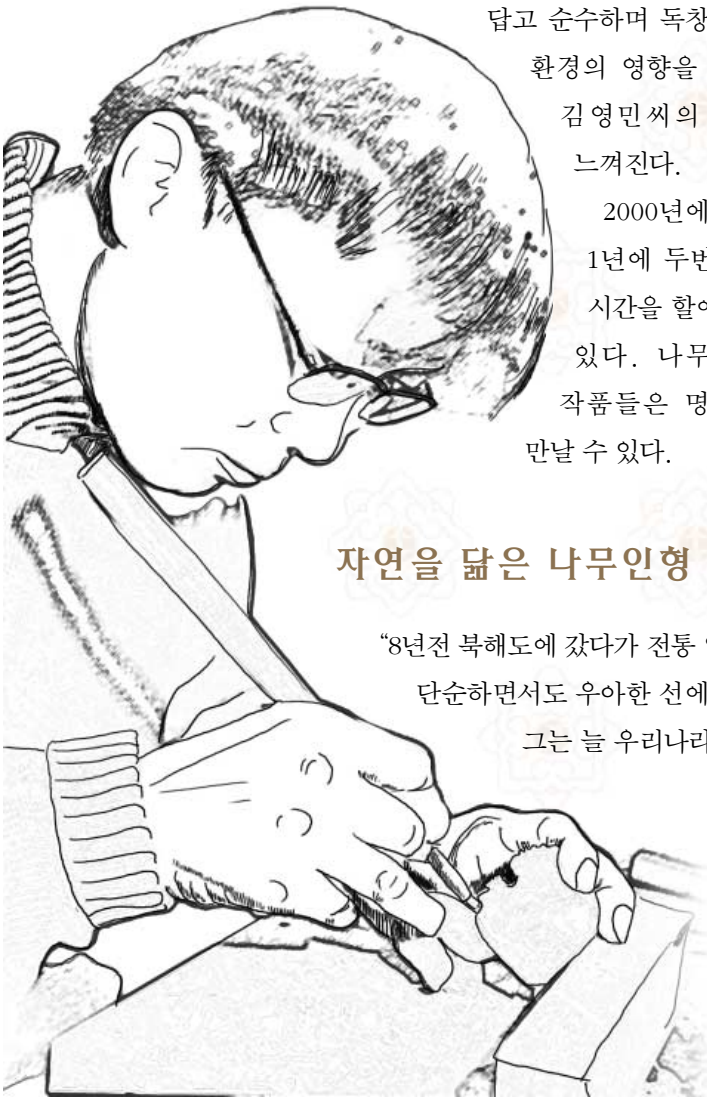
내유동의 자연 풍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정화되기 때문에 창조적인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곳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유난히 아름답고 순수하며 독창적인 것은 공방이 위치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김영민씨의 소박한 웃음이 작품에서도 느껴진다.

2000년에 개인전도 가졌던 김영민씨는 1년에 두번, 한달 정도 개인 작품활동에 시간을 할애해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하고 있다. 나무샘에서 만들어지는 목공예 작품들은 명동 명품관과 인사동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자연을 닮은 나무인형

“8년전 북해도에 갔다가 전통 일본인형을 보고 넋을 빼앗겼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선에 힘이 단번에 느껴지더군요.”

그는 늘 우리나라의 멋을 닮은 인형 만들기에 몰두해 있다. 그의 작품들은 모두 자연에서 소재를 빌려왔다. 새, 나무, 꽃 등이 주를 이루



는데 목각인형도 최근에는 나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얇게 도색을 하고 있었다.

86년 민공예에서 지난해 나무샘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실용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전망이다. 시계, 촛대, 디너벨, 소품, 가구까지 인형에서 시작해 보다 실용적인 공예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허브향이 나는 인형 제작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2 월드컵 지정 공예품으로 선정되면서 월드컵을 겨냥한 문화상품 만들어 내기도 했다.

‘나무는 숨쉬는 재료’라고 말하는 그는 숨을 쉬는 재료를 도료로 칠해 탁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최근에 제작한 ‘아씨와 도령’ 등의 인형에서는 나무결이 보이도록 도색을 하기도 했다.

그가 즐겨쓰는 나무는 개동백나무,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이 나무는 단단하면서도 매끄럽고 흰 것이 특징이다. 백미는 인형에 생명을 불어 넣는 칠 작업, 가는 붓으로 정교하게 그려넣는 그만의 독특한 화법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한다.

한국냄새 나는 인형 만들 터

그는 일본인형을 참 부러워한다. 여러나라의 인형을 봤지만 많은 인형중에 하나를 보고 저 인형이 어느나라 것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다들 비슷하기 때문인데 일본인형은 각국 인형속에서도 독특한 그만의 느낌이 살아있다고 한다.

‘한국인형은 김치와 된장을 먹는 한국 사람이 만들어야 합니다. 민족의 표정과 자태, 한국적인 냄새가 나는 인형은 그 민족이 아니면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적인 냄새가 나는, 순박하고 간결한 표정을 지닌 그런 인형을 만들고 싶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중국에서 저렴하게 신랑각시 등을 제작해 들여왔으나 결국 포기하게 된 것은 이 “한국적인 것”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그가 바라는 ‘한국적인’ 인형은 많은 세월이 흘러도 싫증나지 않는 그런 표정과 자태를 지닌 것이다.